



보도 일시	<b>즉 시</b>	배포 일시	2022. 9. 1.(목) 15:30	
담당 부서	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우종택 (062-720-0660)
		담당자	사무관	고수완 (062-720-0661)

## 자연에너지 100% 활용을 위해 민·관이 머리를 맞대다

- 광주지방기상청, 재생에너지 산업계 지원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포럼 성료 -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김금란)은 9월 1일 13시 30분 광주과학기술원(GIST) 오룡관에서 『재생에너지 산업계 지원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포럼』을 개최하였다.
  - 전라남도, 전라북도, 광주과학기술원, 한국전력공사, 전력거래소, 광주 테크노파크 등 재생에너지 관련기관의 전문가 48명이 참석하였다.
  
- 이번 포럼은 태양광·풍력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기상기후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과 기관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, 현장 중심의 기상기술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.
  - 재생에너지 예측에 이용하는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특별강연과 △ 고해상도 관측망 및 모델링의 중요성, △국내 풍력발전 정책동향 및 전망, △ 현재 전력시장의 문제점과 실계통, 실시간 시장으로 변화하는 전력정책 변화 등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.
  - 특히, 후반부에는 ‘미래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상기술 발전 방안’을 주제로 기상청, 전라남도, 전력거래소, 한국에너지공단, 연세대학교, (재)녹색에너지연구원, 60Hz(주), 씨니사이드(주) 등 산·학·

연·관의 전문패널이 함께 재생에너지 기상기후서비스 민·관 협력방안과 기상기술 개발 과제 등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졌다.

- 한편, 광주지방기상청은 호남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태양광, 풍력발전이 경쟁력 있는 전기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측기술을 혁신하고,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연계한 기상기후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.
  
- 김금란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·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.”라며, “기상관측, 수치모델, 위성,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기상기후서비스를 개발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  
- 붙임: 재생에너지 산업계 지원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포럼 사진

